2023년 자동차의 모든 트렌트를 소개합니다

오토살롱위크, 킨텍스 전시장서 개최
국내 최대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
튜닝카·클래식카 등 고객 니즈 '저격'



지난해 개최한 오토살롱위크 행사 전경. 킨텍스 제공

국내 최대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인 '2023 오토살롱위크'가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국내외 유수 기업의 참가 신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들로 전시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오토살롱위크는 자동차 관련 애프터마켓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로, 서비스(정비·세차), 케어, 부품, 튜닝, 전장용품, 액세서리 분야를 비롯해 각종 튜닝카, 럭셔리카, 클래식카 등 개인의 개성과 니즈에 맞는 차량이 전시되는 국내 최대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다.

'2023 오토살롱위크'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 중에서 필트레이션 분야를 선도하는 독일기업 만앤휴멜(MANN+HUMMEL)이 주목할 만하다. 만앤휴멜 그룹은 1941년 설립이래 전 세계적으로 순정부품 공급과 환경 분야 솔루션 개발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실천하는 기업이다.

또 와이어링 하네스 핵심 소재인 전선, 커넥터, 릴레이 등을 생산하는 전장부품 전문기업 '㈜유라'도 이번 행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에 개최된 '2022 오토살롱위크'는 코로나19 시국에도 180여개 기업이 1,300개 이상의 부스 규모로 참여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7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행사를 찾은 명실상부 국내 최대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로서 위용을 과시했다.

'2023 오토살롱위크' 관계자는 "전시 산업이 정상화 궤도로 올라온 만큼 작년보다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부대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올해도 가족 단위로 방문한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와 관련된 정보는 '2023 오토살롱위크' 공식 홈페이지와 SNS채널을 등을 통해 더 자세히 만나볼 수 있다. 박광수 기자

"애로사항 적극 청취해 불편 해소 노력할 것"

경기동부상공회, 자선골프대회 개최
참가비·후원금 총 6500만 원 모금

경기동부상공회의소가 지난달 30일 '2023년 제7대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가평 썬힐 GC에서 개최했다.

경기동부상공회의소는 이번 대회 참가자로부터 참가비 및 후원금을 모아 총 6500만 원의 자선후원금을 모금했다. 후원금은 경기동부상공회의소가 추진하고 있는 회관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과 지역 불우이웃 및 다둥이가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문한경 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들의 작지만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상공회의소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에 자리를 함께 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시는 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상공회의소를 통해 전달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우 기자



경기동부상공회의소가 지난달 30일 '2023년 제7대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가평 썬힐 GC에서 개최했다.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제공

구리도시公, 직급별 릴레이 공감 통한 소통장벽 해소

일주일 간 총 5회 걸쳐 간담회 진행
건의사항·개인적 경험 공유 등 논의



구리도시공사가 지난 23일부터 일주일에 걸쳐 직급별 릴레이 소통·공감 간담회를 실시했다 구리도시공사 제공

구리도시공사가 지난 23일부터 일주일에 걸쳐 직급별 릴레이 소통·공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급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는 조직 구성원의 세대·직급간 장벽해소 및 소통 활성화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직급별 간담회는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처음으로 직급별로 실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유동혁 사장의 뜻에 따라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급여 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 향상을 비롯한 건의사항 제시부터 개인적인 경험 공유까지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사장은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직원 처우 및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또한,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사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화우 기자

〈남양주시 와부읍〉

사고 위험 빈번한 국지도 86호선… "확장 시급"

확장추진위, 와부구간 8.68㎞ 요구
주민 1만 966명 서명 시·의회 전달
주 시장 "불편 해소되도록 최선"

남양주시 와부읍 국지도 86호선 확장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86호선 와부구간 8.68km(와부읍 월문사거리~화도읍 차산리)의 확장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서와 주민 1만966명이 서명한 연명부를 남양주시와 시의회에 전달했다.

국지도 86호선은 도로가 매우 좁고,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지역민들과 통학생들이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도로로, 확장과 시설 개량이 절실한 상태로 지역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곳이다.

특히,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는 와부~화도 구간 중 화도읍 지역 5km만 일부 반영됐으나, 제5차 계획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아 주민들의 박탈감과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국지도 86호선 확장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관계기관에 민원제기를 해왔고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벌이며 주민들의 뜻을 담았고, 지난 26일 1만여명의 연명서를 제출했다.

조양래 위원장은 "주민들의 염원대로 하루빨리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에서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와부읍 주민들과 추진위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시에서도 와부읍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김포경찰, 무인점포 고질병 '절도' 집중 관리 돌입

양심거울·스티커 부착 등 예방 활동

김포경찰서는 최근 늘어나는 무인점포 절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활동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김포경찰서는 지역 무인점포에 대해 CCTV 등 방범시설 현황과 시인성 확보, 경비업체 가입여부 등 방범진단에 따른 점검을 3단계로 구분해 위험요인이 있는 점포를 순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점포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절도예방 문구를 삽입했다.

또한 자체 제작한 양심거울과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하고, 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을 벌였다.

업주들에게는 새벽시간대 인증을 통한 입장 제한이나 매장 내 가시성 확보 등 자체 보안체계를 공고히 해 나아갈 것과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범행상황이 확인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인점포 뿐만 아니라 범죄취약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해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김포시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용남 기자



최근 늘어나는 무인점포 범죄 예방을 위해 김포경찰서 관계자들이 범죄예방진단을 하고 있다. 김포경찰서 제공

화성오산교육청, 학부모와 합심해 학교폭력 예방한다

교육적 해결 통한 바른 성장 기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2023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학부모들이 공유하고, 교육적 해결을 통해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갈등 사례 속에서 찾은 학부모의 역할 ▲학교폭력 관련 학생 간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청소년 관련 마약과 성범죄에 대한 학부모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소년 범죄 '마약과 성범죄'에 대해서도 연수를 진행했다.

정광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등 우리 모두가 학교폭력의 관련 당사자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화해와 회복의 교육적 해결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지명신 기자

박재동 화백의 나의 그림 이야기


신봉선전 5

중학교는 중퇴했지만, 어머니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잘 도와온 마을에 칭찬이 자자했다. 외할배는 당신 없을 때 손님이 오면 "아버님은 출타중이시라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라고 시켰다. 당시 보통 처녀들은 손님이 오면 숨어버릴 때였다. 이 교육으로 어머니의 인기는 엄청나게 높아져 사방에서 중매가 들어 왔으나 외할배가 모두 퇴짜 놓았다. 그런 중 우리 큰 할매가 중매를 섰는데 교사 발령 대기 중이라는 청년이었다. 선을 보러 왔을 때 어머니를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게 했다.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지나갔는데 까다로운 아버지 맘에 쏙 든 모양, 교사로 발령이 나자 외할매가 바로 승낙하였다. (2000년경 내 그림)